

2016년 12월 14일, 표선면 가시리 한신화씨 댁, 송정희 조사.
한신화(여, 1921년생, 표선면 가시리)

[제보자] 도체비, 요 동네 사름이 죽어빚어. 이젠 저 당낭밧디 가그네에
“제 얄엉 먹엉 오라.”
“예.”
갈치 ㅎ나 끌렝이 헤영 싼 제숙으로
“이거 아전 가그네에 식게 얄어 먹엉 오라.”
“예.”
요디 마저리동산이렌 헌디 잊어. 가단 보난 도체비가 난 막 돌아뎅긴 거라 도
체비가 난
“하이고 이거 이놈이 도체비 저녁에 내 ㅎ나 죽여야 허지.”
제숙 싸 가진 건천으로 싸 준 걸로 막 두들렸어.

[조사자] 도체비를?

[제보자] 도체비를. (웃음) 도체비가 아니고 불난디라. 불난디. 불난디 글로 놀아뎅기고 절
로 놀아뎅기곡. 짓벌겅헤게시리 놀아뎅기난, 그걸 도체비엔 그 끌례기 싸준 걸로
짓두드리당 보난(웃음) 궤기도 어디사 간디 끌례기만 손에 쥐어쥔(웃음). 도체비
ㅎ나 도체비 ㅎ나 잡지도 못허영. 불난디만 돌아뎅기당 그냥 제 얄어 먹으레 가
난(웃음)

“허, 집이서 제숙도 아니 보내연?”

영 허난(웃음)

“갈치 ㅎ나 끌례기에 싸 준 아바지가 싸 주언 당낭밧디 강 식게 얄어 먹언 오
렌 헨 오단 보난 막 도체비가 쳐 난 돌아뎅기난 그거 허연 막(웃음) ㅎ나 잡젠
두드리난 보난 궤기도 엊어.(웃음) 어디 간 줄 몰르곡 도체빈 잡지 못허곡 헤연
겐 그냥 오랏수다.”(웃음)

경 헌 도례가 잊어.

- 핵심어 : 도체비, 당낭밧, 식게, 제숙, 갈치, 불난디